

학생교양기획단 최종 결과보고서

모듬명		2024 2학기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모듬 구성원	대표	이름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제안 유형(A/B) A 유형 :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1. 프로젝트 주제는 무엇인가요?

- 비교과 프로그램인 버디 프로그램을 교양 교과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
-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사이의 교류 증진과 관련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교과목 개발
- 우리 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문화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교양 교과목이 역할하도록 함
- 종합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점을 고민하여 실제 교양 교과목 적용 및 실천 가능성을 분석함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1. 교양 교과목 내 문제점

현재 우리 대학 교양 교과목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진행하는 교양 교과목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 및 한국에 대해 배우거나 교류할 수 있는 수 있는 교양 교과목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해 보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교양 교과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교양 교과목 역시 한국인과 유학생 양측의 교류가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양으로,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만을 도울 뿐, 실질적으로 한국인과의 소통의 기회, 교류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비교

현재 우리 대학에는 국제협력과가 진행하는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 학생과 우리 대학의 유학생들을 연결시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주변인들의 반응에 따르면 물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밀 3번의 인터뷰 내용 참고) 구체적으로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은 양측 교류에 있어서 총괄 책임자가 없다는 점, 일반 학생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 점을 수정 및 보완해 교양 교과목을 만들어 보려 한다.

** 따라서 우리 조는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들을 잇는 교류 증진 교양 교과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 '버디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 학생과 유학생 사이의 교류 필요성 재고

>>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이 버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버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1. 유학생 설문조사

▶ 총 36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학과와 학년의 유학생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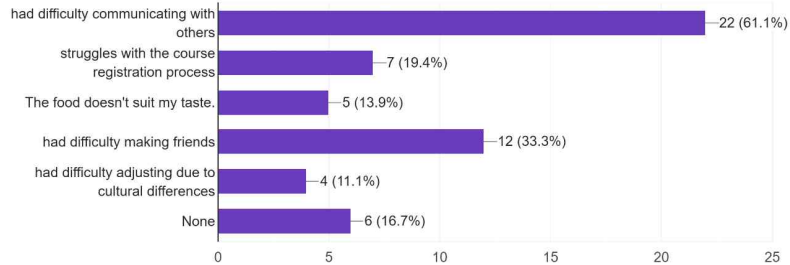
▶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University prepared it for every exchange international student.	To have peers and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play happily	I was assigned to the buddy program
학교에 더 빨리 익숙해져	automatic enrollment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Meeting, picnic etc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was assigned into a buddy to adapt to the campus and all	to make friends
Help me fit in better here.	Because my buddy is very cool
Because I'm exchange student	To make korean friends and improve myself in korean
To make Korean friends	make some friends
To get help from the domestic students/ to make more friends to improve my Korean	to make friends and meet korean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 need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I come to Korea
To meet Korean students and to have someone helping me to settle in on Chonnam University	because everyone was assigned a buddy
I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buddy program so I would have someone to help me understand how things work here. I wanted to have someone I could ask questions freely, without feeling like I'm bothering them too much.	To have someone I can reach out to in korea and that can help me to adapt here (and to meet koreans too)
To meet korean friends	I am not participating as a buddy, but I have been assigned a buddy since I came to Corea and she has been amazing
Mandatory	Since I'm an exchange student I automatically had a buddy
Cause it helped me adjust in Korea	Meet people and share my culture and improve language skills
To meet new people	Make friends
To ease my move into the country and hopefully build a long lasting friendship	We are put into it
	To meet people and to have help while arriving in a new country/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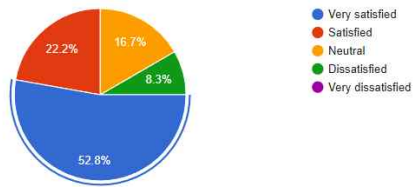
내용을 살펴보자면, "To have someone I can reach out to in korea and that can help me to adapt here (and to meet koreans too)"와 같이 대부분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증진을 바라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자 참여를 희망하였다.

▶ 한국에 살면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2. What difficulties have you encountered while living in Korea? (You may select multiple answers)
 응답 36개



'다른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로 22명(6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12명(33.3%)로 높았다.



▶ 버디프로그램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매우 만족이 19명(52.8%) 만족 8명(22.2%) 보통 6명(16.7%) 불만족 3명(8.3%)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결과였다.

▶ 버디프로그램에 실망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실망스러웠냐는 질문에

My buddy didn't really take care of me and couldn't help me when I had questions about the university life	I was hoping to spend more time with my buddy but they were busy with classes and homework
It would be great if I meet with my buddy more in first semester	My buddy never replied. I met them only once.
my buddy doesn't speak english	Not enough activities proposed to meet other students
nothing, my buddy is goodgood	na
없	No
거의 같이 시간을 안 보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I have only met my buddy once and we don't talk
I wasn't disappointed because I was fine without the help from my buddy because this is my second semester.	
I found the age difference between me and my buddy challenging, as it made it a bit harder to connect. Additionally, we struggled with communication due to the language barrier, which made it difficult to fully benefit from the program. Despite the language and age barriers, my buddy team was incredibly helpful	

"My buddy didn't really take care of me and couldn't help me when I had questions about the university life"와 같이 버디와 충분한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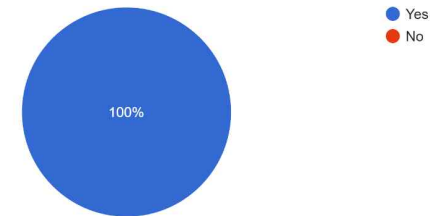
▶ 특히,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Make friends	When I have difficulties in life or study, I can ask someone for help.
To fully enjoy my stay here in Korea without leaving any regrets	just play happily, and improve my language. (?)
I wanted to feel included in the Korean university life and I would like to be shown/experience Korean life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
Experiencing Korea like a local	친구 사귀를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Being friends with my buddy and have fun	Actually by participating on it I was just hoping I could meet more Koreans and make friends
have a good time and make great memories	Help me fit in better here.
meet people each others	No
Meet new people and improve myself in Korean	No specific goals
making friends	Making new friends
For living in Korea	Meeting Koreans and making friends
I wanted to try to talk to my Buddy in Korean. I hoped to hang out together sometimes. I hoped that my buddy would help and support me in case of any troubles.	Having more Korean friends
My goal was to connect with someone and build a friendship with whom I could spend time regularly. Unfortunately, this did not happen, and after the program, I still felt alone. It's very challenging t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as their social circles are often closed to outsiders, and they rarely include foreigners. Socializing is limited to just a few individuals.	To be able to connect more easily with other people.
Meet friends and discover culture	Meeting Koreans
Mandatory	na
Learning how to adjust and finding friends to discover the culture	Making new friends
To meet Korean student	Having a shoulder to rely on? And have good address in the city
	Making a friend
	I don't have specific goal

"I wanted to feel included in the Korean university life and I would like to be shown/experience Korean life"(한국생활에 녹아들고 싶고,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와 같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으며 한국인 친구와의 교류증진이었다.

▶ 버디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6명(100%) "예"라고 답했다.

6. Would you b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Buddy Program again if it were offered?
 응답 36개



2. 한국인 학생 설문조사

▶ 한국인 버디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1. 버디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5개

다양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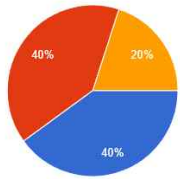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어서

기존에 교환학생을 갔다왔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전남대에 오는 교환학생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여 영어 실력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다음과 같이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와 더불어 영어실력 향상과 외국인 친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참여했다고 답했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버디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으며 매우만족 2명(40%), 만족2명(40%)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버디프로그램에서 실망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던 점"과 "교류가 없었으며, 만날 때 버디 다이어리 작성에 대해 사진 촬영과 같은 부담"이 있다. 라고 답했다.

3. 버디프로그램에서 실망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실망스러웠습니까?

응답 3개

가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점

다대다 매칭이어서 버디들과 약속을 잡을때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많고, 교류가 없다

즉흥적으로나 잠깐 만날때 버디 다이어리 작성에 대해(사진촬영 등) 부담이 조금 있음

▶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국어능력과 더불어 외국인친구와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 답했다. 재차 시행시 참여 의향이 5명(100%)의 결과가 나왔다

영어 실력 향상 및 문화적 다양성

영어회화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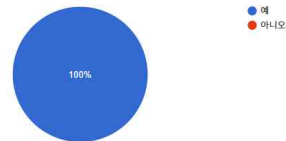
외국어 실력 향상, 교환학생 친구들과의 인연, 좋은 추억, 넓은시야

외국인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그 문화에 대해 듣게 되는 경험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

5. 버디프로그램 재차 시행 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5개



▶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교류 부족과 프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 전남대학교 버디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 버디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묻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음. 이후 개선점을 포함한 내용을 교양 교과목 제작에 활용함

<한국인 학생>

인터뷰 학생 기본 정보 : 강△△ (경영학과 19학번) / 일본인 3명과 말레이시아 1명 총 4명과 함께 버디 프로그램 진행

Q1. 버디프로그램에 만족하시나요?

A1. 불만족한다. 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모두 바쁘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약속시간을 잡기 어려웠다. 또한, 일본어는 잘 하지만 영어는 잘 하지 못하는데, 영어로만 소통이 되는 유학생을 배정해 줘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Q2. 버디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A2. 사실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는 활동 이외에 활동은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 모두 함께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Q3. 버디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A3. 외국인 친구가 생긴 점이 좋았다. 실제로 외국인 한 명과는 많이 친해져서 새벽까지 같이 게임을 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소개시켜 줘서 좋았다.

Q4. 버디프로그램 활동 중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4. 매번 만날 때마다 일지를 작성해야 돼서 힘들었다. 특히, 버디 다이어리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적을 양이 많아서 귀찮기도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버디 친구의 경우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밥 메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같이 먹지 못했다.

Q5. 버디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보람에 비해 힘든 것이 더 큰 것 같아 앞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다. 책임감이 큰 반면, 얻는 게 크게 없었던 것 같다.

Q6. 버디프로그램에서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나요?

A6. 1대1 매칭으로 한 사람 당 한 명의 버디 친구를 맡아 진행하면 좋겠다. 유학생을 모집할 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학생들, 혹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모집해 주었으면 좋겠다.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Q7. 나에게 버디란?

A7.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Q8. 버디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양 (외국인과 친해질 수 있는 교양)이 있다면 들을 의향이 있나요?

A8. 없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어울릴 생각은 없으며, 원하는 국적의 친구들과만 함께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 영어권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외국인 학생>

인터뷰 학생 기본 정보 : R△△△△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 최△△ 한국인 학생과 버디프로그램 진행

Q1. Are you satisfied with the Buddy program? why? (버디프로그램에 만족하시나요?)

A1. Yes I am because the buddy program helped me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connect better. (그렇다. 버디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Q2. What activities did you do in the Buddy program? (버디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A2. I did quite a few activities with my friend, but the most memorable activity was when we went to a baseball game together. It was my first live experience, so it was a great one. (친구와 함께 꽤 많은 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였다. 첫 라이브 경험이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

Q3. Was there anything difficult or difficult during the Buddy program activities?

(버디프로그램 활동 중 어려웠던 활동이 있나요?)

A3. Not much. The only thing is that my buddy was busy with classes most of the time as she is an aspiring engineering student. At times it is difficult to fix plans as our schedules clash. (많지 않다. 유일하게 어려웠던 점은 친구가 공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이 바빠서 일정 조정과 만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웠다.)

Q4.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improve in the Buddy program? (버디 프로그램에서 개선되면 좋겠는 활동이 있나요?)

A4. I would say it is better for the buddy to bring student around the campus for a tour as it allows more time to explore the university. Besides, constantly keeping in touch is important as it allows more connection with each other and getting to know each other more. (학생들을 데리고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Q5. If you have a culture similar to the Buddy program (a culture that allows you to get close to foreigners), would you be willing to listen to it? Why? (버디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양 (외국인과 친해질 수 있는 교양)이 있다면 들을 의향이 있나요?)

A5. Yes of course I would be thrilled to learn more better as we already share a few similarities. It would also be easier for us to communicate as we can share common things together and learn from the other culture too. (그렇다. 물론 이미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기에 서로의 문화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또한, 공통점을 함께 공유하고 다른 문화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 인터뷰 내용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창구의 필요성, 일정 조정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담당자의 부재 등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 점을 참고하여 교양교과목을 개발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 문헌 조사,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을 기술

▶ 논문 내용 분석

<논문 :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 학업증진 / 대인관계 / 문화교류 / 진로 및 취업

*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

: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일회성 체험 행사나 문화 체험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와 프로그램이 불일치하거나,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표 1〉 국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	내용
고려대학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KUBA(대학생활도우미), 문화탐방 및 체험
단국대학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생활안내 설명회, 국제학생 문화탐방, 국제학생 문화제, 국제학생 추석파티, 국제학생 체육대회
동국대학교	유학생 문화체험, 글로벌버디, 학습튜터링, 정기상담, 학업부진자상담
경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신입생 상담(학사 및 취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한국어 보충 강좌, 학사 경고자 교육과정
성균관대학교	학사 지도 프로그램,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 어깨동무 프로그램, 토레 학습 세미나, 성균 튜터링 프로그램, 글로벌 스위칭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간담회, Global Buddy 프로그램, 예비대학: 외국인학생 오리엔테이션
연세대학교	한국어능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Customized Academic Advising 제공: 외국인 학생회 활동, 학부대학 글로벌 세미나, 학부대학 Peer Mentoring
가톨릭대학교	베나생(베움, 나눔, 생명) 센터: DMZ 에코 프로젝트, 사회봉사센터 연탄 배달 봉사, 자기주도적 학습, 커뮤니티/교수-학생 멘토링, TA BANK(성적 우수 외국인 학생이 TA로 활동하며 전공수업 지원)

<표 1>은 이보경 외(2012)의 연구와 최근 몇몇 대학에서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개설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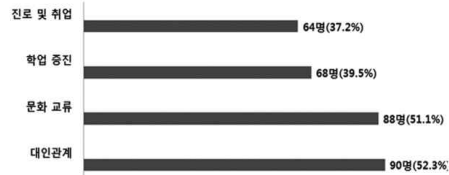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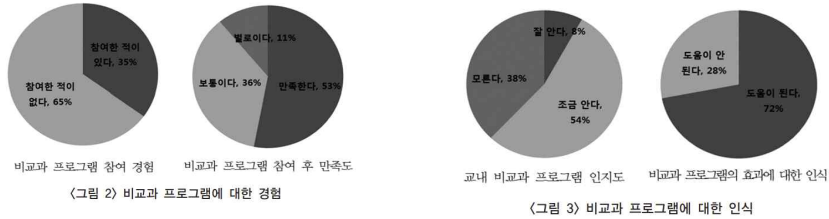
* 학생들의 요구들을 분석한 결과(설문조사를 통해)

유학생들은 대인관계와 문화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함 => 이를 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일까?

-> 정보 부족, 시간 제약, 프로그램 홍보 부족 등이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나타남

*서울과 부산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 중인 172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와 인식,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2016~4.4~15 (2주간 진행)



<그림 4>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대인관계 및 문화교류를 가장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할까?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발방안

-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 ✓ 명확한 운영 주체 필요,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외국인 요구사항분류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필요
- ✓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점인정제 도입

-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점 인정해줘야한다 -> 교과목화로 이를 해결
- 프로그램 유형의 분류(학업, 대인관계, 문화교류, 진로)하여 외국인 유학생 특성과 요구에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 문화교류와 대인관계를 주 목적으로하는 교과목 개설하여 유학생들의 주요구사항을 충족 or 각 원하는 항목별에 특화된 교과목 개설/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의 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
- 명확한 운영 주체 설정,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서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한다 -> 명확한 운영 주체, 교수님. 한 학기동안의 주기적인 만남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이를 해결 가능

▶ 교양 교과목 개발 제안

✓ 해당 내용과 문제점들을 토대로 직접 "글로벌 의사소통"이라는 교양 교과목 개발을 제안해 보려 한다.

교과목명	국문	글로벌 의사소통		
	영문	Global Communication		
교양영역	세부영역	평가방법*	학점**	
역량교양	공동체	합불제	3	

수업 목표

1. 문화의 정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2.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한국생활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학생들과의 소통능력을 기른다.

교과목 요약 설명 (100자 이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의 어려움을 한국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문화탐방을 통한 한국의 문화를 학습한다.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소통하며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인재상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대학 핵심 역량	창의			감성			공동체		
	융합	문제발견해결	컴퓨팅사고	인문	문화예술	놀이	자기설계	시민	글로벌
	●				○	○			◎

※ 핵심역량은 제1역량(●), 제2역량(◎), 제3역량(○)으로 표기(최소 1개 ~ 최대 3개 선택)

타대학 유사 교과목 운영 사례

한성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가 있다. 이 교양은 '글로벌 시민의식' 90%와 글로벌 소통능력 10%를 목표역량으로 설정한다. 문화의 차별, 교류와 한 대에 대해 2주간 배운다. 더불어 3주간의 조별 발표 및 토론수업이 진행되고 1주간의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교양교과목 운영 방법

해당 수업은 문화탐방 및 토론 중심의 수업이다. 수업은 100%대면으로 진행된다.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발표, 토의, 팀기반 학습, 문화탐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자국의 문화를 내용으로 한 발표 및 토의가 주된 활동이 되며 학기 중 한국의 문화탐방을 위해 실습활동을 시행한다.

▷ 세부 진도 및 강의 주제는 논문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수업이 수강생들의 글로벌시민의식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_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수업을 중심으로] 內 표4를 참고해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표4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세부진도 및 강의주제

WEEK	수업 내용	비고
1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2	문화의 정의와 문화 다양성(동영상 수업+과제)	
3	차별과 배제, 편견	
4	교류와 환대	
5	다문화주의	
6	세계시민교육1	
7	세계시민교육2(동영상 수업+과제)	
8	문명의 충돌	
9	문화와 종교	
10	문화체험	
11	중간 고사	
12	조별 발표 및 토론 수업(베트남1~4)	
13	조별 발표 및 토론 수업(베트남5~7/일본)	
14	조별 발표 및 토론 수업(중국2/연합2)	
15	기말 PBL 과제 제출	

- 평가방식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패논패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버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교양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수업 내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 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실제 다양한 유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은 학생들이 참여하려 하기 때문에 접근성 및 책임있는 활동 진행이 가능하다.
- 책임자(담당 교수)가 생기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커리큘럼이 생겨 전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멘토링이나 고민 상담과 같은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교양이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시간이 정해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를 초빙해 수업 내 특강을 진행할 수 있다.
-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함께 글로벌 이슈를 토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